

2017년 12월 27일, 한림읍 강구리 강구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
양신생(여, 1941년생 한림읍 강구리)

- 줄거리: 효자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팔각이죽헌 땅에 묻어달라고 하여 팔각이죽헌 땅을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 없었다. 14일이 되던 날, 말에 말뚝을 실어서 가는 사람을 만나 사연을 말하니 그 사람이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팔각이죽헌 땅이라고 하였다. 그래서 그곳에 아버지를 묻었다.

[제보자] 어느 효자가 아버지가 죽으난, 아버지가 돌아가난 유언 허난
“나는 죽거든 팔각이죽헌 땅에 묻어달라.”
팔각이죽헌 땅에.

[조사자] 팔각이죽헌 땅이 뭐과?

[제보자] 아, 게난 이 말을 곁으른 끝에 나오지. 팔각이죽헌 땅에 묻어달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허니깐 그 효자 자식은 두일레 십사일 다 돌아다녀도 팔각이죽헌 땅을 못찾은 거라. 못찾으고 십사일 되는 날은 막이 산에 이레 돌아다니단 보난 어떤 사람이 말에 옛날엔 그 말뚝도 그 불 떼고 뭐 허니깐 그걸 말에 쫓언 말에 싱그는 사람 잇언, 그 사람이

“웨 이렇게 돌아다니느냐?”

허니깐

“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허기를, 돌아가시든 팔각이죽헌 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팔각이죽헌 땅을 두일레 열나흘 십사일을 돌아다녀도 못찾았다.”

영 허난, 그 말 실르는 사람이 뭐라고 헛는고 허면은

“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팔각이죽헌 땅이다. 웨냐? 팔다리 두, 사람 팔다리 넷, 말 다리가 넷 허니깐 팔각, 이죽은 말 하나, 사람 하나, 이것이 팔각이죽헌 땅이다.”

경 허연, 그 아덜이 그 팔각이죽헌 땅에 아버지 돌아가신 두일레 열나흘 십사일만에 장사지냈덴 헌 말. 나는 이거 옛날 들은 말 우리 친정아부지 막 나이 드신 분이난, 이런 말도 곁안 듣고.

- 핵심어: 효자, 아버지, 죽음, 장례, 팔각이죽, 말, 산, 땅, 유언